

세월호법 호소문 전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여당과 야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불교계가 화합의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9월 1일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호소문은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래는 두 총무원장 호소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국회는 ‘민생법안’ 외면치 말아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합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 첫걸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두 번의 합의와 번복, 장외투쟁 등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갈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야는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야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언어와 무책임한 행동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쟁을 접고 여야간 직접 대화에 나서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국회여야 정상적인 것이며 그러할 때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에게도 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들의 거룩한 마음을 믿고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십시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와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야 지도자들은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고 본연의 일에 충실하도록 화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포용하여,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란리본 힘으로 새 시대를 엮시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국회에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신성한 의무의 영역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그로인한 의견차와 대립 또한 국회 안에서 토론과 양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현안과 관련한 법안들도 세월호 특별법과는 별개로 다루어져 시들이 가는 민생을 보양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구의 신성한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 아픔의 크기를 누가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온 국민은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지금도 서로 맞잡은 손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준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국가 지도자와 정치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대응적인 화합이 앞서야 합니다. 종교계와 문화계, 경제계와 정치권이 지금 화합하지 않으면 내일은 해가 뜨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었고 그 아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온 국민이 더 없는 안타까움과 더 없는 슬픔 속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국가와 정치권은 국가혁신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를 뒤덮은 노란 리본은 같은 고통을 두 번 겪을 수 없다는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는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치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고, 온 국민의 아픔을 담보로 극한 대립 구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합의를 깨고, 신성한 의사당을 두고 밖에서 투쟁하고, 세월호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좌절하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발언대

출가연령 상한 찬반론

조계종이 김천 직지사서 진행한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73명, 여행자 41명 등 총 122명이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10년 전 300여명을 넘나들던 출가자 수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불교 각계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고령화 진행... 젊은 소수정에 필요



가섭 스님
前 조계종 교육부장

현재 출가연령 상한은 50세까지 되어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 출가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관건이다. 종단의 지원책을 구체화해 현장의 스님들이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발표한 특별법에 반영돼 있다. 여러 혜택들로 인해 차차 나아질 것이다. 출가자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에 있다. 많은 이들이 출가의 길에 대해 잘 모른다. 출가인들이 세속과 떨어져 있는지만 알며, 심지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출가의 길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원에서는 출가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무원 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 모바일 등을 활용해 출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안내하는 것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출가자는 전문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은 것이 불교 중흥의 대안은 아니다. 출가자가 사회적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산중에서 수행만 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전법 도생이라고 하는 큰 원력으로 수행과 공부한 내용을 회향해야 한다. 적은 수가 출가하더라도, 많은 스님들이 사회 흐름에 부응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출가 연령을 높이는 것은 위험 홍보에 있다. 많은 이들이 출가의 길에 대해 잘 모른다.

출가자 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출가자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출가자의 수와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출가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퇴직을 하고, 세속에서 생활한 분이 자기 삶을 회향할 때 봉사하는 '회향형 출가제도'를 둔다면 인적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어느정도 세속에서 경험이 많은 이들

회향출가·단기출가 활성화가 해답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먼저 밝히자면 부처님 당시 출가 연령 상한은 없었다. 연령을 제한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 당시 계율을 맞지 않다. 출가자 문제는 출가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연세가 높다, 낫다를 떠나서 수행과 전법에 자질을 갖춘 스님이나가 중요하다. 출가자 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출가자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출가자의 수와 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출가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년퇴직을 하고, 세속에서 생활한 분이 자기 삶을 회향할 때 봉사하는 '회향형 출가제도'를 둔다면 인적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어느정도 세속에서 경험이 많은 이들

이 불교에 회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회향출가의 스님들은 종단 교역직 보다는 봉사직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출가한 이런 분들이 종단에 요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위치를 갖는다면 출가연령에 따른 승가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 출가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어떤 방책을 써도 출가자를 늘리려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출가 홍보를 위해서는 단기출가, 기간 출가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간 출가를 통해 일정기간 출가를 체험하는데, 기간 체험은 3~5년을 출가를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가의 역할이다. 세상이 변화하듯, 승가도 변화해야 부처님 법을 꾸준히 전할 수 있다.

‘이행합의’ 보다 소통 정신 살리기를

조계종과 대각회가 9월 1일 비공개로 이행합의를 체결했다. 5개항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는 대각회를 종단 특별교구화하고 중앙종회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노력하고 대각회의 신규사업은 대각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재)대각회의 조계종 법인 등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실 조계종과 대각회의 이행합의는 2000년 합의의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조계종과 대각회는 2000년 합의문을 통해 용성문도회 소속 스님이 설립한 사찰에 한해 20개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사찰을 허용하고 대각회에서 요구하는 특별교구화 등의 법인 채우 문제는 종헌 개정 시 다루도록 한다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래서 조계종과 대각회 이사회는 이 같은 합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은 기본 바탕에는 강제성을 규약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역시 우후죽순 늘어나는

법인들을 관리해 법인 사유화를 경계해 삼보정제가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다. 그럼에도 법인 등록을 위해 먼저 대형 법인과 합의하고 중소 법인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관련법이 허용하는 선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를 전례로 다른 법인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본래 법 정신은 퇴색될 여지가 크다. 2년간 이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한다고 대각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만큼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일간에서 이를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법인관리법은 분명 각종 관계들이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그래서 더 소통하고 낮은 곳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대각회 분원장들의 의견도 일방적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지도층 간의 합의보다는 아래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고종 불협화음 종단안에서 해결하라

오호통재라. 태고종이 위기다. 원로회의가 지난 8월 28일 총무원장, 총회위원장, 호법원장 등 3원장의 퇴진 결의를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퇴진의 주 대상은 도산 총무원장이다.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는게 원로회의의 퇴진 결의 이유다. 이에 대해 해당 당사자인 도산 총무원장 스님은 질타와 경책은 겸허히 받아들일것지만 물러날 뜻은 없으며, 오호령 총단 부채 문제와 관련된 스님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천명했다. 즉 종단 부채의 귀책 사유자 정리 없이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이 생기더라도 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가뜰이나 요즘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윤일병 구타 사건 등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고 화합에 앞장 서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반목과 갈등으로 일선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겠지만 동업생명과 동체대비의 마음을 갖고 그 차이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다. 수많은 스님들중 태고종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수행과 포교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당부 드린다. 태고종은 47억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부채가 있다. 급히 꺼야 될 불이다. 이런 중요한 시국에 서로 싸움만 한다면 종단의 미래는 볼음 보듯 뻔하다. 하루속히 이 불협화음들이 종단 안에서 지혜를 모아 화합의 하모니로 바뀌기를 간절히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시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간과 자연, 순수한 동심의 원형을 그리는 화가 이영철이 전하는 화해와 치유의 그림편지!!
사랑이 온다
Here comes love 이영철 화가의 힐링편지
이영철 화가의 힐링북 “사랑이 온다”
화가 이영철 그림 사인회 9.21(일), 오후2시 광화문 교보문고 구서재
-헤민스님의 '추천의 글' 중에서
글, 그림 이영철 | 320쪽 | 15,000원
구입처 :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02-3672-7181 www.unjusa.com | 인터넷서점 및 전국 대형서점